

	<h1>보도참고자료</h1>		
	배포일시	2018. 12. 16(일) 총 1매(본문 1)	
담당 부서 철도시설안전과	담당 자	· 과장 김유진, 사무관 이성민, 주무관 전성진 · ☎ (044)201-4623, 4624, 4627	
보도 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국토부, 관제센터에서 선로전환기 위치·상태를 관리 중

- 선로전환기는 각 철도운영기관의 관제센터에서 전자정보지도로 위치와 작동상태 등을 실시간 관리하고 있고, 선로전환기에 이상이 생겼을 때는 자동으로 표출됨
 - 관제센터에서는 선로전환기의 장애가 표출될 경우 관계기술자가 현장에 급파되고, 필요시 국토부 철도안전감독관도 현장을 지원 하는 체계임

- 코레일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의 안전권고(‘18.12.10)에 따라 우선 강릉선의 선로전환기 점검을 12월 19일(수)까지 시행하고, 나머지 노선의 전체 선로전환기도 12월 15일(토)부터 점검중임
 - 또한, 서울교통공사 등 각 철도운영기관은 우리부 점검지시(‘18.12.13)에 따라 12월 19일(수)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해 나갈 계획임

< 관련 보도내용(국민일보, 12.16) >

◆ “국토부, KTX 탈선 원인 선로전환기 어디에 몇 개 있는지도 모른다”
- 탈선 후 8일이 넘도록 전국의 선로전환기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셈